



조계종은 1월 28일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과 1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 조계종 현안 타개 '죽비' 들다

### 총무원, 1월 28일 '100인 대중공사' 출범 및 1차 회의

사부대중 120여 명 참석  
자승 스님 "이벤트 아나"  
합의 과제, 행정 반영 약속

분임토의로 8대 의제 정해  
인재 양성·포교가 첫 주제  
대중공사 2월 24일 논의

**100인 대중공사 8대 종단 의제**  
종단의 인재 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  
사찰 재정 투명화  
종단 신뢰 구축  
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종단 활성화  
승가 공동체 회복  
사회적 의제 실천  
지역사회 사찰 역할 강화  
교구 중심의 지방 분권 강화

불교 인재 양성, 사찰 재정 투명화, 승가 신뢰 구축 등. 한국불교장자 종단인 조계종 앞에 놓은 현안들은 산적해 있지만, 안팎으로 갈등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부대중이 머리를 맞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28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 및 1차 대중공사가 열렸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100인 위원으로 초청된 각계 사부대중 120여 명이 참석했다. 100인 위원에 이름을 올린 대중은 총 167명이다. 이 같이 사부대중이 대규모로 모여 종단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주요 인사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포교위원장 지원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를 비롯해 선원, 율원, 강원 소임자, 주요 사찰 주지 스님과 불교학계, 시민사회단체, 포교선행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모시는 말을 통해 100인 대중공사 추진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특히 대중공사를 정치적 이벤트로 평가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정치적 편견으로 속단해 진중한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판단의 이면에는 종단 운영에 대한 짙은 불신과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대중공사를 통

해 합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무기관과 중앙종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100인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의제는 인재 양성이었다. 대중들은 '종단의 인재 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54표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정했다. 이어 △사찰 재정 투명화(47표) △종단 신뢰 구축(37표) △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종단 활성화(33표) △승가 공동체 회복(32표) △사회적 의제 실천(15표) △교구 중심의 지방 분권 강화(12표) 등을 중요하게 다룰 것을 결의했다.

결정된 의제는 매월 대중공사를 통해 세부적 실천 방안 등을 정하게 된다. 높은 선택을 받은 의제인 '종단의 인재 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은 오는 2월 24일 2차 대중공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은 올 한해 3월 25일, 4월 29일, 5월 27일, 6월 24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30일, 10월 28일, 11월 25일 등 총 9차례에 걸쳐 대중공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냈고, 총 14가지 의제를 투표에 부쳤다. 투표를 진행한 뒤에는 실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8대 의제가 정해졌다.

100인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의제는 인재 양성이었다. 대중들은 '종단의 인재 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54표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정했다. 이어 △사찰 재정 투명화(47표) △종단 신뢰 구축(37표) △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종단 활성화(33표) △승가 공동체 회복(32표) △사회적 의제 실천(15표) △교구 중심의 지방 분권 강화(12표) 등을 중요하게 다룰 것을 결의했다.

결정된 의제는 매월 대중공사를 통해 세부적 실천 방안 등을 정하게 된다. 높은 선택을 받은 의제인 '종단의 인재 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은 오는 2월 24일 2차 대중공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은 올 한해 3월 25일, 4월 29일, 5월 27일, 6월 24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30일, 10월 28일, 11월 25일 등 총 9차례에 걸쳐 대중공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공주=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관련 해설 3면)

## 불자들 종교 열성도 낮고 고령화 추세

한국갤럽, 종교실태조사... 1984~2014년 분석

불교인은 타종교에 비해 종교열성도가 낮으며, 구성원이 고령층에 편중돼 향후 종교인구에 있어 열세에 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이 나왔다.

한국갤럽은 최근 전국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에 대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1) 종교실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자들은 생활에서 불교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개인 생활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개신교인(90%)이었으며 천주교인(81%), 불교인(59%), 비종교인(30%) 순으로 나타났다. 불교인은 1984년 88%에서 2014년 59%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주 1회 이상 종교 의례 참여율도 개신교인(80%)이 가장 높고, 천주교인 59%, 불교인 6% 순이었다. 불교는 연간 의례 참여 수준으로 시주 또한 1년에 1~2번이 45%로 가장

많았다. 기독교인은 매주하는 십일조를 위주로 이행률(개신교인 68%, 천주교인 36%)이 역대 최고다.

문제는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에 있어서 불교의 호감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종교인의 호감가는 종교 순위에서 불교는 25%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이 또한 2004년(37%)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수치가 변동을 없었다.

이와 함께 종교의 대물림 현상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불교가 가장 높았으며(부친 67%, 모친 82%), 그 다음은 개신교(부친 47%, 모친 56%), 가톨릭(부친 38%, 모친 46%)로 나타났다.

불교의 경우는 특히 구성원 다수가 고령층으로 향후 종교인구에서 열세에 처할 것이라 분석도 나왔다. 갤럽은 자료에서 "현재 불교인의 종교인구치율이 높지만 향후 가족 구성

한국인의 종교 인구 분포 (%)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 (종교없음)	비종교인 (종교없음)
1984년	19	17	6	3	56
1989년	21	19	7	2	51
1997년	18	20	7	1	53
2004년	24	21	7	1	47
2014년	22	21	7	0	50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원을 통한 종교인구의 확장성은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한 개신교 측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30년 전인 1984년과 비교하면 종교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2004년에 비해 '10대 이하'는 47%에서 38%로 줄고 '40대 이상'이 11%에서 22%로 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교인 비율 감소 원인은 청년층에 있으며 고령화로 향후 종교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 종교가 세대별 사회생활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본사 주지 '문화재보수 수의계약' 교수

주지협, 29일 회의서... 정부 공개입찰 방침 반대

선학원 추진위 구성 등의

정부가 문화재 유지보수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개입찰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회의는 1월 29일 김천 직지사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공개 입찰제가 아닌 현행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총무원 문화부는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문화재청이 문화재 유지보수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긴급적 줄이려 한다며 이에 대한 종단 통일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절충안인 사업수행자 선정위

원회를 통한 계약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공개입찰을 하면 사찰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또 선정이 되지 않은 업체는 여러 문제를 제기해 불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으며,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3년 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마곡사 대웅보전을 보수했는데, 올해 전면 해체보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공개입찰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토로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현행 방식이 효율성이 높다. 사찰 건축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주지협회의는 총무원의 요청에 따라 선학원 특별

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구성안도 논의했다.

추진위원으로 신홍사, 범주사, 마곡사, 수덕사, 은혜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금산사, 송광사, 봉선사 등 11명, 상임위원으로 범주사, 수덕사, 범어사 등 3명의 본사주지스님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태고종 선암사측이 조계종 등기명의를 말소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받았으며 불교신문 월 구독료 인상안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교구본사주지협회의는 3월 24일 오후 3시 금정총림 부산 범어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회장 3교구 신홍사 주지 우승 스님과 부회장 5교구 범주사 주지 현조 스님을 비롯해 16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1030호 INDEX

사방세계  
교사불자연합회  
명상연수 현장



만남 그리고 향기 16·17  
유필화·이기향 교수



보련  
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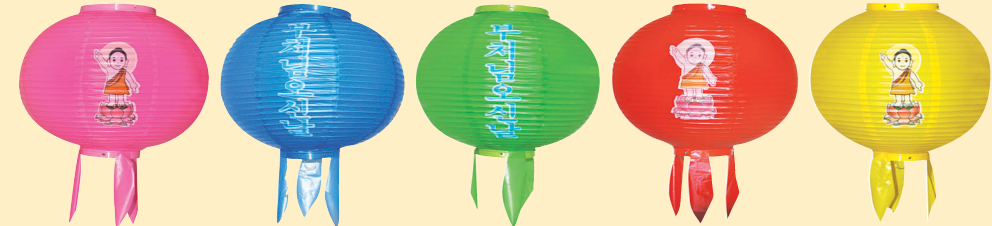
| 초파일 용품 |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8번길 27